사고실은 도N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	
皆州也正是创村	배포일자	2022년 5월 25일(수)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시립박물관	담당자	• 전시교육부			40-6731 40-6737	
사진(이미지)	□ 없음	음 ■ 있음	참고자료]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시립박물관 한나루 갤러리에서 ⟨골목, 남겨진 기억⟩展 개최- 숭의동 109번지 전도관 구역을 비롯한 철거지역에서 수집 된 명패 전시 -

인천광역시는 5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립박물관 1층에 위치한 한나루 갤러리에서 〈골목 - 남겨진 기억〉전을 개최 한다고 밝혔다.

한나루 갤러리는 인천시립박물관 1층에 위치한 전시 공간으로 인천의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과 차별화해 커피와 문화를 함께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사라져 가는 인천 골목을 주제로 숭의동 109번지 전도관 구역을 비롯해 철거되는 지역에서 수집된 명패와 패찰 등을 전시했다.

유동현 인천시 시립박물관장은 "전시되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익숙한 것들로 오랜 세월을 함께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사라져가는 것을 기억하고 추억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며 "이번 전시회에 많은 관객들이 찾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9시부터 18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6월 6일 제외) 휴관이다.

〈붙임〉관련 포스터 및 전시 물품 사진



